

유류세 카드수수료 1조원 추가부담

석유유통협회, 정부 징세비용 주유소가 부담 ... 수수료 1%대 인하해야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최근 5년간 정부가 부담해야 할 유류세분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1조3000억원이나 추가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석유유통협회가 경기대 이병철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현재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에는 50% 이상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정부가 부담해야 할 징세비용을 주유소가 부담하고 있고, 1980년 신용카드제 도입 이후 정부 대신 부담한 카드 수수료가 수조원에 달하고 있다.

석유유통협회는 “순수 판매가격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주유소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유류세분 카드 수수료를 주유소가 부담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맹점 수수료를 내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2006년 2182억원이었던 유류세분 카드 수수료는 2007년 2457억원, 2010년 3232억원 등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해마다 신용카드 매출이 증가하고 고유가까지 겹치면서 유류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주유소 경영여건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석유유통협회는 정부가 유류세분 카드 수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거나 수수료율을 1%대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주유소 카드 수수료는 1.5%이지만 유류세가 50%인 현실을 감안하면 실질 카드 수수료율은 3%가 넘는다면 1%로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철 교수는 “징수 편의를 위한 정책 때문에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세금 징수를 대행하는 주유소에 대한 유류세 카드 수수료 면제가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0/24>